

PLACE

찾아가는 현장 | 대전광역시

문화가 있는 여행 | 대전광역시 '아주미술관'

앞서가는 사람들 | 용인시청 한상영
재산관리팀장

지방자치 꽃 피우는 그들을 만나다!

Place 섹션은 더 나은 지방재정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코너. 지방자치 꽃을 활짝 피우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그들을 만나다. 이번 호는 통합재정수지비율과 지방채무잔액지수 면에서 재건전전성이 뛰어나 재정분석 우수 단체로 선정된 '대전광역시'와 더불어 '공유재산 정보공개'를 통한 세입증대'로 대통령상을 수상한 용인시청 한상영 재산관리팀장을 찾았다. 문화가 있는 여행에서는 대전광역시에 있는 '아주미술관'을 소개한다.



대전광역시

더 잘사는 도시, '부자도시'를 꿈꾸다!

— 대전광역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과학의 도시', 대한민국 신기술을 이끌어 온 도시로 유명한데... 과학의 도시라는 이름과 더불어 대전광역시는 '복지도시'로도 유명하다. 건강카페나 복지만두레가 그 대표적. 과학의 도시, 복지도시와 더불어 또 한 가지, 최근 대전광역시는 '부자도시'를 꿈꾸고 있다. 더 잘사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는 대전광역시를 찾았다.

글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자료 • 대전광역시



●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교통의 요충지인 대전 광역시. 이러한 지리적인 여건으로 대전정부 3청사와 세종시가 출범했는데... 세종시가 계획대로 이전하게 되면 중앙정부 기능의 63%가 집적되어

우수한 수준. 재정운영 효율성과 계획성 분야에서 다른 시·도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정부 최초로 무디스의 신용평가에서 Aa3 등급을 받아 재정건전성과 안정성을 국내·외적으로 공인받기도 했다. 대전광역시측은 “최근 5



▲ 대전의 상징 엑스포 기념탑과 갑천 야경

대전광역시를 포함한 충청권은 사실상 행정수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정수도 역할과 더불어 기존 대덕특구에 국제과학비즈니스 거점지구가 완공되면 ‘과학의 허브도시’로 미래의 먹거리를 창출해내는 신성장 동력의 에너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수도 역할과 과학의 허브도시 외에도 대전 광역시는 재정건전성이 뛰어난 도시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작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자치단체 재정분석에서 전국 특별시·광역시 중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재정 인센티브를 받았다. 이 평가에서 대전광역시는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와 부채 관리지표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말 대전광역시의 지방채 규모가 6,517억 원.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18.4%로 다른 광역시와 비교할 때

년 간 세입 규모가 연 평균 4.9% 증가하고 있는 것에 견주어 복지수요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등 대규모 투자사업이 산재되어 있어 건전재정 운영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대전경제 30조 원 규모로 키우다

● 대전광역시의 경제정책은 국·내외 기업을 유치해 대전의 경제규모를 키우고, 고용창출을 유도해 ‘더 잘사는 대전, 부자도시 대전’을 만드는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 민선 5기 동안 일자리 공시제 운영, 청년 일자리와 고졸자 취업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 일자리 미스 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등 일자리 창출에 힘을 모으고 있다.

경제구조의 기반이 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자금을



1

다각화해 경영안전을 도모하고, 국·내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전시·박람회 개최를 통한 수출상담 등 통상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경제를 30조 원 규모로 키우기 위해 580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친환경 도시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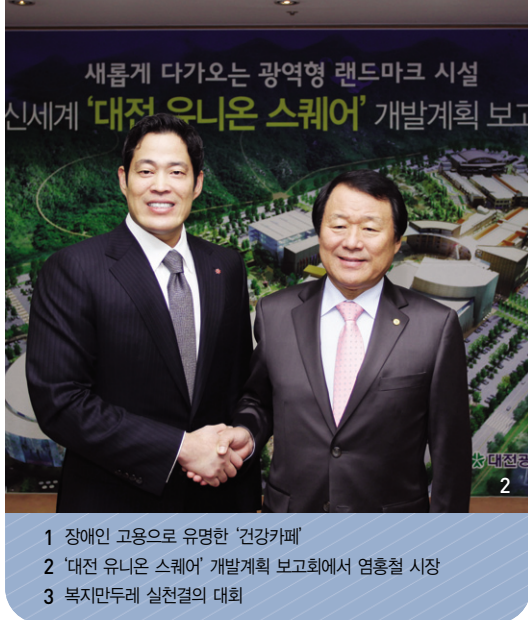
미래의 먹거리 창출하다

● 대전광역시 최근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 산업육성이다. 과학기술과 비즈니스를 연계·융합하는 신성장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조성해 대덕과학특구와 연계 개발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미래 핵심기술의 하나인 나노융합 기술을 선점하고자 나노융합 3대 강국 진입을 목적으로 기능성나노소재사업화 지원센터를 건립하는 한편, 기업 맞춤형 시제품 생산과 특허출원 지원, 기술선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펼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전나노융합 R&BD센터를 구축하고,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나노 관련 전문기업 150여 개를 유치하고 1만 2,000여 개 일 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배려하다

● 대전광역시는 부자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애쓰는 한편으로, 다양한 복지정책을 펼쳐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장애인이나 취약계층도 더불어 잘사는 행정서비스에도 힘을 쏟고 있다. 장애인 '건강카페'의 성공적인 운영이 그 대표적인 사례. 염홍철 대전광역시장의 일본 삿포로시청 방문때



소규모 카페에서 일하는 장애인을 보고 벤치마킹해 작년 2월 대전시청에 건강카페 1호점을 개설했다. 공공청사의 여윌공간을 건강카페로 조성한 것. 이곳을 장애인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임대함으로써 민원인들에겐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장애인들에겐 일자리 제공과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 판매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건강카페는 모두 7곳에 설치되어 장애인 29명이 일하고 있다. 내년에는 12곳, 50명으로 확대 운영해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통합사회를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쪽방마을 사랑나눔 가꾸기' 사업도 주목받고 있는 사업 중 하나. 대전역 주변에 밀집한 쪽방마을은 취사시설이나 화장실이 없는 3.3㎡ 규모의 취약한 주거공간이 밀집된 지역. 대전역 역세권 1km 구간에 241세대 251명의 취약계층이 하루하루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 이에 대전광역시는 지역리더 중심의 위원회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단을 구성 추진하면서 전문가 모니터링 결과를 수시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사업비 12억 원을 투입해 출입문과 장판 교체, 도배·전등·냉난방시설 보수 등 주거여건 개선 노력을 펼치고 있다. 또한 도로·하수구·가로등·공중화장실 정비, 벽화거리 조

성 등 '거주민 참여 마을가꾸기 사업'도 함께 시행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복지만두레로 사회안전망 구축하다

● '복지만두레' 대전광역시만의 독특한 사회안전망이다.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정부의 공적부조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사각지대 중에서 가장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1만 2,000세대를 발굴해 가정 정상화를 위한 기본생활을 지원하는 한편, 사례별 70개 맞춤 프로그램(가사도움, 가족지원, 생활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73개 단체 1만 7,000명의 민간 복지자원과 대학병원, 어린이재단 등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도 구축해 계층별 맞춤 특화 서비스도 펼치고 있다. 취약계층 집단거주지역 8개소에 '푸드마켓'을 설치하고 기부식품을 제공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에도움을 주고 있다.

기본적인 생활도움 외에도 '교육 만두레'를 도입해 교직과정 이수자 200명이 만두레 교사로 활동하며 취약계층 자녀 1,200명에게 방과 후 학습 지도를 지원하고 있다. 복지만두레 시민학교도 개설되어 있다. 이곳을 통해 지역리더를 육성하고, 지역복지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있다.





평생교육, 원도심 활성화 추진하다

● 시민 모두가 전 생애동안 배우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평생교육 도시 대전 실현을 위한 노력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 인문고전 읽기,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등을 운영중이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 2020년까지 1



1 대전광역시청사 1층에서 운영중인 재활용매장

2 청사 내에 설치·운영중인 도서관

조 6,000원을 투자하여 도시의 균형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청사 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예술단지 조성하고 교양대학 운영, 시립박물관을 설치해 원도심 공동화를 방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특히 원도심의 차 없는 거리, 우리들공원, 목척교 주변 데크 등을 활용해 시민이 모여들고 주변상가도 북적이는 주요 행사장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흥동 골목재생사업'과 '우리들공원 주변 재창조사업'이 2014년에 끝나면 대전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화할 것으로 대전광역시측은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중부권 상생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전-세종-청주(청원) 및 천안 등 충청권 핵심 도시를 연계한 거대도시권을 형성해 지역별 특성화, 기능적 연계로 시너지를 창출하는 '중부권 메갈로폴리스' 실현도 꿈꾸고 있다. 🌟

인 터 뷰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

“고귀하고 행복한 시민 많았으면”

Q **시민들과 아침산책을 한다 들었는데**

● 시민들에게 다가가는 방안의 하나로 매월 한 번씩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가 시민들과 아침산책하면서 대화도 하고, 시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침산책 외에도 시민들과 소통하고 화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시민을 만나는 ‘금요 민원실’도 그 중 하나죠. 재래시장이나 생산 현장,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등을 방문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듣고 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시민과 함께 하는 거리청소, 시정의 주요 현안을 가지고 토론하는 ‘주제가 있는 시민토론회’도 같은 맥락입니다. 요즘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SNS도 적극 활용하고 있죠.

Q **공약이행 중간평가에서 전국최고 점수를 거뒀는데**

● 지난 8월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전국 시·도 단체장들의 민선 5기 공약이행 중간평가를 발표했어요. 전국 16개 시·도 중 대전시가 선거공약 이행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민선 5기 시정 철학을 공유하면서 열심히 노력한 직원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공약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132개 사업 중에서 이행이 끝난 사업이 13건, 이행 후 계속 추진중인 사업이 70건으로



염홍철 대전광역시 시장

전체적으로 62.9%의 완료율을 보였습니다. 추진하면서 큰 어려운 점은 없지만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같이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업은 성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아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더군요. 서두르지 않고 공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엑스포재창조 사업을 위한 롯데 '북합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안 설명회



Q 특별히 애정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은

● 공약사업은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모두 다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굳이 뽑자면 작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복지전달서비스 개선을 위해 출범시킨 대전복지재단, 대중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첨단의료 관광도시 등에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두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되어있죠.

Q 장애인 복지수준 2년 연속 전국 1위인데

● 장애인 복지정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일자리 지원을 통한 자활유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별없는 통합사회 실현에 목적을 두고 있어요. 전국에서 장애인이 가장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건강카페'를 통한 장애인일자리 사업이 전국 벤치마킹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를 앞으로도 계속 확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 작년 11월 착공한 건

양대병원 앞 '서남부장애인복지관'이 곧 준공됩니다. 현재 설계중인 청각·언어장애인 복지관을 조기에 착공해 임기 내에 끝낼 계획이고요. 중증장애인 2,621명에 대한 활동지원으로 사회참여를 이끌어내고 있고, 여성장애인자립지원센터도 작년부터 운영하고 있어요. 성폭력 피해자 쉼터도 중앙부처에 건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대로 내년 개원할 예정입니다.



- 1 롯데 '북합테마파크 조성' 사업 제안 설명회
- 2 장애인고용회사 '한울타리' 방문
- 3 대전시청 민원실에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서비스
- 4 외국인투자기업 합동 업무협약식



Q 대전의 재정상황은 어떤지

● 복지수요 확대와 지역 균형개발을 위한 재정수요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에 비해, 글로벌 경제침체에 따른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 재정여건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지역개발의 시급성을 조율해 장·단기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적인 예산절감 시책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절감한 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투자해 생산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죠.

Q 작년 재정분석 우수단체로 선정됐는데

● 경제흐름을 주기적으로 분석하며, 재정세입의 증감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 결과라고 생각해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예산제를 확대해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자리 창출 예산 우선 편성,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 심사제도 운영 강화로 예산의 중복투자를 미리

막았어요. 이런 노력들의 결과로 지방채 비율이 18%대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어서 재정압박을 덜 받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국비 대상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정부예산 심의 때 선제 대응하면서 지방비 부담은 줄이고 지역개발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결과라 봅니다.

Q 그밖에 하고 싶은 말은

● 관선시장과 민선 3기 시장을 역임했고, 민선 5기 시장으로 시정을 이끌고 있어요. 많은 시민들과 대화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경제가 좀더 좋아졌으면 하는 소박한 희망의 말을 많이들 하더군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행복의 울타리도 더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예요. '고귀하고 행복한 시민을 가장 많이 길러내는 도시가 가장 부유하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처럼 대전을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아주미술관'

자연과 전통, 문화가 공존하는 미술관

- 첨단 과학도시 대전의 테크노밸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적오산 중턱에 위치한 미술관이다. 아름다운 자연풍경과 현대적인 콘크리트 건물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건축물과 미술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글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자료 • 아주미술관



● 한 폭의 수채화를 닮은 자연풍경 속에서 건축과 미술, 음악 등을 한 번에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만 해도 마음이 설레는 곳. 대전에 가면 그런 곳을 만날 수 있다. 북대전 I.C(대덕밸리 I.C) 바로 옆에 자리잡은 아주미술관. 대전·충남 지역의 사립미술관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이곳은, 다른 지역 미술관과는 달리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적오산 기슭에 자리잡고 있다.

3,200여 평의 터에 1,500평 규모. 친환경 개념을 중시한 설계와 공간배치, 동선구조,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위치 덕분에 2004년 개관 당시부터 주목받았다. 3개의 전시장 외에도 뒷마당에는 충남 홍성에서 옮겨온 330년 된 12칸짜리 한옥 '항여조'가 있어 더욱 눈길을 끈다. '항상 아침 같아라'는 뜻을 담고 있는 항여조는,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주미술관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곳 뒷마루에 앉아서 바라보는 넓은 잔디밭과 적오산 풍경이 마음을 사로잡는다.

아주미술관은 우리나라와 중국·일본 등의 흙 인형과 흙집, 수정물고기, 청자 잉어연적 등 기원전 유물에서부터 근·현대 회화, 도자기, 조소작품 등 국보급 유물을 포함해 모두 2만 여점을 소장하고 있다. 유물 가운데는 지금까지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국보급도 있다. 이곳 설립자인 이재흥 이사장은 이 동양작품들을 수집하기 위해 30여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1,500여 차례 넘게 다녀왔단다.



1 아주미술관이 숨겨둔 '항여조의 설계'

2 현대건축이 가진 아름다움의 극치 '아주미술관'





1

꼬불꼬불 미로를 닮은 전시실

● ‘아시아 뮤지엄’에서 이름을 딴 아주미술관은 가족 단위의 대전시민들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즐겨찾는 대전의 명소이다. 주말이면 아이 손을 잡고 나들이 나온 가족들이나 연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이곳이 여느 미술관과 다른 독특한 점 또 한 가지는 전시실 디자인. 탁 트인 전시장 입구 왼쪽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돌며 감상하는 일반 미술관과 달리, 이곳 전시장은 미로를 닮았다. 꼬불꼬불한 길을 돌아다니며 작품 하나하나를 만난다. 곳곳에 눈부신 보물을 숨겨 놓은 듯하다.

이곳에선 미술품만 감상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공연장, 작업장, 놀이터 등 현대 미술관이 추구하는 복합 문화공간을 표방하고 있다.



2

건축, 미술, 교육, 음악이 함께 공존한다. 관람객의 입맛에 따라 고르기만 하면 된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말 '미술학교'도 인기다. 매달 프로그램 내용이 바뀌는 미술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마음껏 온몸으로 미술을 체험하며, 즐길 수 있다.

지금 아주미술관에선 '차일만 전 - 자연고향곡'이 전시되고 있다. 차일만은 한국 사실주의 풍경화를 대표하는 작가. 서구의 화풍을 바탕으로 한국의 빛과 색, 자연을 연구한 작품 60점을 감상할 수 있다.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아 신비한 광선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자연풍경이 담긴 풍경화와 더불어 화가 인생의 여정이 담겨있는 자화상 시리즈가 전시중이다. 인상주의를 한국적으로 풀이해 풍부한 색감을 뽐내내는 작품들이 아름다운 빛과 색의 울림으로 전시실을 신비롭게 채운다. 



| 문의 | 아주미술관 042)863-0055
홈페이지 : www.asiamuseum.asia

- 1 공예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실
- 2 미로를 달은 전시장 통로
- 3 차일만 작가의 작품 전시장
- 4 미술관 곳곳에 숨어있는 공연장

대전 '성심당' '대전문화'가 된 동네 빵집



대전을 찾는 이라면 꼭 들러야 할 곳이 있다. 바로 56년 된 빵집 '성심당'. '성심당 = 대전문화'로 통하는 이곳은 날마다 빵이 1만 개씩 팔린다. 하루 매출은 2,000만 원. 400여 가지 빵이 진열된다. 시식할 수 있도록 빵을 큼지막하게 잘라 끊임없이 내놓는 것이 이 빵집의 특징이다. 매장 안을 한 바퀴 돌며 시식만 해도 배를 채울 정도.

2011년에 프랑스 미술관 가이드에 선정되기도 했더니, 여느 동네 빵집을 연상하면 곤란하다. 성심당의 인기 메뉴는 '판타롱 부추빵'과 '튀김 소보루'. 판타롱 부추빵은 단팥빵 반죽에 만두속을 넣은 느낌이고, 튀김 소보루는 소보루 속에 단팥이 들어가 있다. 둘다 내놓기 바쁘게 팔리는 인기 메뉴라 어떤 땐 30분 넘게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 둘다 뜨거울 때 먹어야 제 맛. 차가운 우유와 함께 먹으면 더욱 금상첨화이다.

1층 빵집에서 계산하고 2층 키친테라스에서 다른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된다. 중구 은행동에 있는 본점 외에도 대전 롯데백화점이나 대전역에서도 성심당의 빵맛을 맛볼 수 있다.

한 상 영

용인시청 재산관리팀장

“조금만 생각
바꾸면
답이 보인다”



대담 · 박길성(한국행정DB센터 소장)

정리 · 김귀숙(편집실)

사진 · 양성진(큐브릭스튜디오 실장)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살림이 다들 넉넉하지 못한 요즘. 재원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생각을 1%만 바뀔 수도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용인시 재산관리팀을 이끌고 있는 한상영 팀장.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공유재산 관련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만으로, 작년 한해 300억 원이 넘는 돈을 벌어들인 주인공이다. 올해는 그 수입이 더 많을 것이라고 짐작되는데... 따로 예산 한 푼 들이지 않고 벌어들인 것이라 더 주목받는다. 행정안전부의 언론보도와 여러 기관에서의 사례 발표, 전국 각 시·군으로부터의 벤치마킹 문의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실감하면서 그는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답이 보인다”는 걸 확신하게 됐다고.

Han Sang Yeong



지금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 용인시청에서 재산관리팀장을 맡고 있어요. 우리 재산관리팀은 국·공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과 더불어 대부, 매각, 실태조사, 변상금부과, 소송수행, 차량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특수시책으로는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때 찾아가는 민원업무 처리로 시민편의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정보 공개와 국·공유재산의 전략적인 관리로 세입증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재정 분야와 다른 점은...

● 88올림픽이 개최되던 해에 공직생활을 시작했어요. 바로 엇그제 같은데 벌써 24년 세월이 지났네요. 원래 농업직 공무원인데, 9급 시절 양곡관리 특별회계 업무를 맡은 이후 지금까지 15년 동안 예산 회계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어요. 재정의 일상적인 업무는 기획·지원 업무인 반면, 재산관리는 세입 재원을 직접 마련할 수 있는 업무가 추가된 분야입니다. 현장 확인행정이 필수죠. 그동안 예산편성, 자금교부, 집행 등 돈을



쓰는 일을 주로 하다가 재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일을 하니깐 힘은 들지만 새롭고 매력적인 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작년에 대통령 표창을 받았던데...

● 지방예산효율화 우수사례발표대회에서 '공유재산 정보공개로 통한 세입증대' 사례를 발표했어요. 그때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받았죠. 공유재산은 온비드(www.onbid.co.kr)에 정보가 공개되어 접근하기 쉽지만, 공유재산(도유지, 시유지)은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어요.

우리 용인시는 시 홈페이지(www.yonginsi.net)에 공유재산에 대한 토지정보, 현황사진, 대부여부, 대부 및 매각절차 등을 공개했어요. 현재 전

국 299개 지자체 중에 우리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대통령상 수상 이후에 사례 발표도 하고, 여러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하는 등 주목받고 있어요.

공유재산 활용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 개인적으로 부모님이 용인에서 90 평생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오셨죠. 땅에 대한 애착, 특히 농지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어요. 어린 시절 야산에 개간허가를 받아 계단식으로 농지를 조성하고 뽕나무를 심어 누에농사를 지으면서 기뻐하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재산관리팀장으로서 국·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활용이 가능한 재산인데 잡목이 우거진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는 땅을 바라보면 정말 안타깝더군요.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러다가 공유재산 정보공개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따로 예산도 필요없어요. 원래 책정돼 있던 홈페이지 유지비·보수비만으로도 충분하죠. 사진이나 데이터는 다 있어요. 여기저기 흩어져있어서 자료 찾기가 어려울 뿐이었어요. 이걸 한데 모아서 데이터베이스화한 거죠. 요즘은 번지만 치면 사진부터 대부 자료까지 몽땅 다 나와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 그동안 국유지·도유지·시유지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 농지위원 등의 점유물로만 생각했죠. 그런데 정보공개 이후부터는 일반 시민들도 인근에 있는 국·공유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매각과 대부 수입 증가가 바로 시민들의 반응이 아닐

까요. 최근 3년간 실적을 말하자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은 78억 6,000만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공유재산 대부 수입은 3억 9,000만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어요. 변상금도 2,900만 원으로 6배 증가한 성과를 올렸어요.

관련 민원이나 문의가 많다던데...

● 지목에 맞지 않게 대부중인 재산에 대한 문의가 특히 많았어요. 지목이 농지인데 공장 용지나 대지용도로 대부하면 관련법에 위배되는 지를 묻는 민원이나, 대부중인 재산에 대한 제3자 대부가능 여부, 입찰 참가절차, 대부와 매수절차 등. 그래서 ‘알기 쉬운 국·공유재산 편람’을 제작 배포하는 등 여러 방법을 찾아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은데...

●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땐 이렇게 실적이 좋을 줄 몰랐어요. 성과가 너무 좋아요. 그냥 ‘농고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시작한 것이죠. 방법을 찾다보니까 방향이 잡히더군요. 남들보다 조금만 더 생각한 결과예요. 도로를 개설하면 자투리 땅이 해마다 나와요. 건설 과정에서 몇 년씩 그냥 묵혀두는 걸 ‘용도폐지’ 과정을 거쳐서 넘겨받아요. 그걸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거예요. 보통 연초에 잡은 국·공유재산 세입예산을 연말에 줄이는 게 대세인데, 우린 오히려 반대예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실무자 시절에 농지전용 인허가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어 많은 도움이 되





● 한상영 팀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재산관리팀원들

있어요. 다른 시·군에서도 인허가 실무경험이 있는 직원을 재산관리 부서에 배치해 국·공유 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시책을 추진한다면 지방재정 확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올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중이던데...

● ‘국·공유재산의 전략적 관리를 통한 세입증대’ 시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행정기관(지자체)에는 각종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는 막강한 권한이 있어요. 이 권한을 국·공유재산 관리업

무에 적절히 이용하는 겁니다.

현재 국·공유재산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골프장, 대학교, 연수원, 공장 등)는 사업부지에 포함된 국·공유지의 경우, 매수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련 인허가(변경허가) 협의 때 정당한 협의권한을 활용해 매수계획서 제출을 유도하죠. 국·공유지를 매각해 세입을 확충하는 겁니다. 대부분적이 많아 한꺼번에 매수하기 어렵다면 3~5년간 차례차례 매수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안해주고 있어요.

최근 국·공유지 대부료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7건이 들어왔어요.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어서 100% 지는 싸움이지요. 소송비용만 건당 2억 원이 넘게 들어요. 단계별 매각 등의 방법들을 제안해 소송취하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지금까지 소송취하로 3억 7,000만원의 예산 지출을 막았고, 매각 수입 등으로 226억 원의 세입성과를 올렸어요.


다들 재정살림이 어려운 상황인데...

● 다들 잘 알다시피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국가나 자치단체들도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용인시도 예외일 순 없죠. 각 부서별로 긴축 재정, 재원확보, 경영사업 발굴 등 재정건전화에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소속된



회계과는 주로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지만, 재산관리팀은 유일하게 세입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팀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팀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 조직의 재정건전화를 꾀할 수 있을까, 살림살이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고 있어요. 생각을 1%만 바꾸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격월간 '지방재정'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난다!

● 격월간 「지방재정」은 전자책(e-book)으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자책(e-book)서비스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 좌측하단 'e-book → 지방재정자료'를 클릭하거나, 전자책 서비스 홈페이지(ebook.lofa.or.kr)로 바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모바일로도 언제 어디서나 책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방재정」 외에도 지방재정관련 간행물, 업무자료, 보고서 등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발행되는 각종 자료에 대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호의 목차에서 원하는 내용을 클릭하면 기사 원문을 자세히 볼 수 있으며, 통합검색과 페이지 확대·축소, 필요부분 출력 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도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